

11~15세기 중반 기사문화가 중세복식에 미친영향

조 현 진* · 김 영 삼** · 정 흥 숙⁺

인하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 중앙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 중앙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An Effect on the Costumes in the Middle Ages of the Culture of Knight from the 11th Century to Middle of the 15th Century

Hyeon-Jin Cho* · Young-Sam Kim** · Heungsook Grace Chung⁺

Doctoral Course, Dept. of Clothing & Textiles, Inha University*
Instruct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ung-Ang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ung-Ang University⁺
(2003. 11. 3 투고)

ABSTRACT

In this thesis, the connectivity between the military culture in the Middle Ages and costumes by researching the effect on the clothing in the Middle Ages of the culture of knight from the 11th century to middle of the 15th century was tried to be recognized.

The culture of knight was widely divided into 4 articles - Chivalry, Tournament, The equipment of knight, Heraldry - and then researched.

The conclusion after researching the influence of the culture of knight upon the clothing in the Middle Age in the above is as follows.

Regarding the clothing, the military culture such as the crusader war, armor, and heraldry was popularized over the entire Middle Ages as the military-look style, and regarding the ornament the result of the crusader war caused the introduction of the Eastern civilization and development of the commerce and industry, and also trade, and consequently the ornament became luxurious. Regarding the footwear, when seeing the Gothic shoes, it can be found that it is similar with the knight's shoes made of the metal.

As seen in the above, it can be recognized that the culture of knight caused the huge influence upon the whole politics, culture, and society in the Middle Ages as well as upon the costumes.

Key words : knight(기사), armor(갑옷), heraldry(문장)

I. 서론

기사는 11세기에서 15세기 중반 중세 유럽사회에서 봉건제와 십자군 전쟁이라는 독특한 시대적 배경하에 재력과 권력을 바탕으로 중세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친 계급이었다.

기사는 전쟁의 산물로서 중세의 전쟁과 기사와의 관계를 보면 주로 초기에는 전쟁이 기사를, 후기에는 기사가 전쟁을 필요로 했다. 초기의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은 질서를 유지하는 무사계급을 원했고, 이러한 상황에 의해 귀족의 구성원이 된 기사들은 자신들의 생계와 존속을 위해 전쟁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즉 전쟁은 그들의 존재 이유이자 생활이었다.¹⁾

서양에 중세 봉건사회의 기사가 있다면 동양에서는 BC11세기 고대 주(周)나라의 봉건제 아래 활동했던 제후(諸侯)와 일본의 에도(江戸)시대(1603~1867)에 봉건제 아래 활약했던 사무라이(侍)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봉건제 아래에 군사계급이 존재하였는데 본 논문에서는 기사문화가 복식에 미친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기사문화가 출현하기 시작한 11세기부터 가장 번성했던 15세기 중반까지로 시대를 한정하였고 지역적으로는 서구유럽으로 한정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선행연구와 자료부족 및 실증적 사료를 쉽사리 접할 수 없으므로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비디오²⁾ 자료를 활용하여 중세 기사 문화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그리고 봉건제와 십자군 전쟁이라는 독특한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기사의 기원과 개념을 알아보고 기사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기사도, 마상시합, 기사의 착장물, 문장에 대해 연구해 봄으로써 기사문화가 중세 복식에 미친 영향을 고찰해 보았다.

중세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던 기사 문화에 대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으며 기사문화와 관련된 복식사 논문으로는 신상욱³⁾, 정현숙⁴⁾, 최영옥⁵⁾의 연구가 있고, 복식사 외 분야에서는 안상길,⁶⁾ 김희용,⁷⁾ 최용갑⁸⁾의 연구가 있을 뿐 기사문화 전반에 대한 본질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흡하나마 기사문화 중에서도 특히 중시되었던 기사도 마상시합, 기사의 착장물, 문장을 중심으로 고찰해 봄으로써 기사문화가 중세 정치·문화·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쳤던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복식사 분야에서의 군사복식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무대의상 디자인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과 의의를 둔다.

II. 기사문화의 형성 및 배경

기사문화는 11세기에 출현하여 15세기 중반에 가장 번성하여 중세 전반에 영향을 주었는데, 본 논문에서는 기사의 개념과 기원에 대해 알아보고, 정치·군사적 배경으로 봉건제와 십자군 전쟁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1. 기사의 개념 및 기원

기사(knight)라는 단어는 단순히 무거운 갑옷을 입은 말 탄 기사로 묘사하기도하고 종교적 명령, 도덕적 가치를 내포하는데 이 가치는 기독교의 신념과 연결된다. 대부분 유럽의 언어에서 기사라는 단어는 글자 그대로 말과 말 탄 사람을 합쳐 부르는 말로써 귀족계급과 그 위엄과 전투마와 갑옷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신분을 내포한다.⁹⁾

원래 기사는 구래(舊來)의 명문 귀족보다는 낮은 신분이었다. 이들 기사를 문헌에 따라서는 ‘familia’로 불렀는데, 이 단어는 노예는 아니지만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 층을 일컫었다. 이들은 결재에 필요한 인장을 소유하지 못했고, 귀족가문에 대하여 세습적인 의존관계 속에서 살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소유지도 봉토보다는 자영지(alloodium)가 더 많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아 1150년 이후 이들은 기사 칭호를 받으면서 사회적으로 상승해 갔다. 무사세력이 중세 사회에서 갖는 의미가 증대함에 따라 12세기에는 성이 증가했고, 기사들은 성주로 상승해 갔다. 물론 이때까지도 귀족의 최상부(prince, magnate)에서는 옛날의 귀족(nobles)개념이 통용되고 있었다.

13세기 후반에 이르러 기사는 귀족으로 상승하게

되었고, 귀족하면 곧 기사를 의미하게까지 되었다.¹⁰⁾

2. 정치·군사적 배경

1) 봉건제(feudalism)

봉건제(feudalism)는 중세 유럽의 봉토수수(封土授受)에 의해서 성립되었던 지배계급 내의 주종관계를 나타낸 말로써, 중세 초에 성립한 사회적·군사적·정치적 장치의 복잡한 패턴을 가리키기 위해 근대 역사가들이 만들어낸 용어이다. 봉건제도를 규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어원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feudalism은 봉토(封土)를 뜻하는 feudum에서 나온 말이다. 중세에는 그 말이 대개는 군사적 봉사의 댓가로 주군에게서 부여받은 영지를 가리켰다.

봉건제의 기원은 게르만족에게서 기원한 것도 있고 로마제국으로부터 기원한 것도 있다. 우선, 충성서약으로 맺어지는 봉신과 주군과의 관계가 게르만의 종사제(從士制comitatus)에서 기원하였고, 특정한 봉사의 댓가로서 조건부 토지 보유는 옛 로마의 토지법에서 유래한 것이었다.¹¹⁾

봉건제도에는 두 가지 지배원리가 있다. 그 하나는 토지에 대한 지배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에 대한 지배이다. 토지에 대한 지배와 인간에 대한 지배는 상호 중첩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영주없이 토지없다’는 격언에서 보이듯 봉건제도 편성 원리의 기본은 인신적 의존, 즉 인간에 대한 통제에 있었다.¹²⁾

봉건제도가 점점 더 확대되면서 통일된 국가권력을 급속히 약화시켰다. 왕과 자유시민사이에 계속해서 새로운 중간 고리들이 끼어 들게 되었기 때문이다. 1039년에는 정신적으로나 세속적으로 위대한 봉신들은 봉토를 대대로 물려줄 권리가 법으로 인정되었는데, 이것은 그들이 봉토를 자신들의 재산처럼 처분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다만 봉토는 매매할 수 없었으므로 봉토를 물려받을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봉건영주에게 다시 되돌려졌다. 이 시기부터 세습봉(封)으로 토지뿐만 아니라 관직을 나눠주는 일도 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왕의 통치권은 점점 무너져 갔다. 봉건제도는 중세의 고유한 국가형식이었고, 절대주의가 등장하면서 비로써 사라지게 되었다.¹³⁾

2)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이란 1095년에서 1272년에 걸쳐 이슬람교도들로부터 성지 예루살렘의 탈환을 목적으로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전후 8회에 걸쳐 강행한 전쟁이다. 이 전쟁에 참가한 기사들이 의복의 가슴에 기독교의 상징으로 십자가를 표시하였기 때문에 십자군전쟁이라 불렀다.¹⁴⁾

십자군으로 종교적 맹세를 한 기사들 사이에는 강력한 군사적 질서가 생겼으며, 십자군 왕국들의 변경에 기사들이 주둔하는 강력한 요새들이 체계적으로 세워졌고 기독교를 믿는 유럽 전역에서 말을 모는 기사계급 사이에 ‘기사의 규범’이라는 것이 좀 더 세련된 형식으로 확대되었다. 11세기에서 13세기 사이에 서양의 군사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의심할 것도 없이 기사이다.¹⁵⁾

군사적으로 볼 때, 십자군은 로마제국의 강력한 군대가 사라지고 16세기에 국가권력이 재등장하게 된 사이에 긴 공백기간 동안 유럽전쟁의 성격과 문화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대상이다.

십자군 전쟁은 중세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성지 회복의 실패는 교황의 권위를 상실시키고 교회의 위신을 추락시켰다.

그 결과 장원제도에 기본을 둔 지방분권적 지배체제는 무너지고 중앙집권적 국가체제가 대두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은 정치적 상황에서 그 후 백년전쟁과 장미전쟁은 영국과 프랑스의 봉건제후의 세력을 더욱 약화시켜 군주국가의 출현을 촉진시켰다.

십자군 전쟁은 동방 무역의 길을 열어 원거리 무역을 촉진시켰고, 도시와 상공업의 발달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로 인해 신흥로의 발견이 촉진되고 이탈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하여 자유적 사상이 크게 고양되었다. 서유럽의 도시와 상공업의 발달, 그리고 이로 인한 화폐 경제의 발달은 기본적으로 자금자족이었던 중세 장원경제를 무너뜨린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또한 십자군 전쟁으로 내륙 및 동서 교역은 활발해지고, 로마 멸망 후 이질적이고 독자적으로 발생한 유럽 세계의 3대 문화권이 상호접촉을 통해 하나의 통일된 유럽 문화권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¹⁶⁾

Ⅲ. 기사문화

기사문화란 봉건적이고 주종적이며 군사적인 환경에서 자란 것¹⁷⁾으로서 여러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기사도, 마상시합, 기사의 착장물, 문장으로 나누어 조사해 보았다.

1. 기사도(chivalry)

기사는 하나의 집단으로서 특별한 도덕의식과 특이한 생활방식을 공유하였다. 무엇보다도 높고 평가된 것은 용기와 명예였다. 기사에게는 도덕규범이나 가치관인 기사도(chivalry)가 있었다.¹⁸⁾

11세기와 12세기의 기사도란 단지 기사들의 집단을 뜻하는 말이었다.

12세기와 13세기에는 기사들의 윤리 규범과 생활 방식이 어느 정도 세련되게 만들어졌다.

13세기에 이르러서야 기사라는 신분은 기사도라는 개념을 연상시키게 되었다. 이전까지만 해도 기사란 단지 땅을 받는 조건으로 말 등에서 군복무를 하는 병사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12세기의 십자군과 성당기사단과 같은 조직은 기사라는 신분을 존경할 만한 것으로, 이어 신성한 것으로 이론했다. 기사란 특별한 미덕과 용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기사신분을 수여 받은 사람이라는 그 이론은 널리 받아들여지게 되었다.¹⁹⁾

2. 마상시합(tournament)

기사는 평화로운 시기에는 마상시합을 함으로써 전투기술을 연마하였다.²⁰⁾

마상시합은 11세기부터 프랑스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²¹⁾

마상시합은 자우스트(joust)와 터니(tourney)로 구분되는데 자우스트는 기사들 개인간의 전투로, 각자 창을 들고 세 차체에 걸쳐 전속력으로 치달려 서로를 공격하는 것이었다. 그런 공격으로 어느 쪽도 말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그들은 말에서 내려 칼이나 철퇴 혹은 도끼로 상대를 세 번씩 가격했다. 터니는 그와 비슷한 훈련이었지만, 그것은 기사들이 집단적



<그림 1> 자우스트(joust)

Stephen, N. F. (1998). *Arms and armor*, p. 54.

으로 실시한 훈련이었다<그림 1>.²²⁾

11세기와 12세기의 마상시합은 진짜 무기를 사용하는 전투 훈련이었고, 어떠한 안전 조치도 없었다.

13세기까지는 진짜 전투와 모의 전투와의 차이가 미미했다.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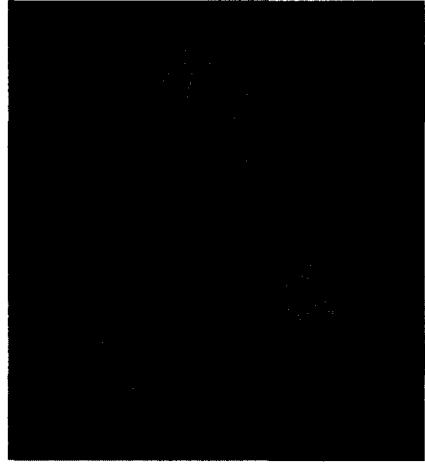


<그림 2> 마상시합용 투구

川成 洋(2000). *武器と甲冑*, p. 28.

13세기 이후에는 특수한 시합용 갑옷이 등장하여 마상시합이 보다 안전해지자 변화가 생겼다. 군사 훈련일 뿐 아니라 관람객을 위한 스포츠가 되었다. 창 의 반동을 흡수하기 위해 창을 고정하기 위한 장치를 가슴판에 부착하였다. 그리고 세 갈래로 갈라진 창날을 사용함으로써 창날이 투구의 면갑을 뚫고 들어가는 일을 예방하고 충격을 분산시켰다.

마상시합용 투구<그림 2>는 아예 갑옷에 부착되어 있어서 충격을 받아도 벗겨지지 않았다. 그리고 상대방의 창을 빗겨 가도록 만드는 특별한 방패도 부착되어 있었다. 말에 쓰는 장비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시합용 안장은 기사가 말에서 쉽고 안전하게 떨어질 수 있도록 바뀌었다. 하지만 기사가 전투 중에 말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치명적인 것이었다. 갑옷 디자인은 갈수록 정교해졌다. 독일에서는 스프링이 달린 특수한 흉갑도 제작되었는데 요란하게 부서지는 흉갑은 상대방의 주위를 교란시키는데 쓰였다. 마상시합은 세월이 갈수록 더 인기 있는 궁정행사가 되었다.²⁴⁾



<그림 3> Hauberk,
Stephen, N. F. (1998). *Arms and armor*. p. 36.

3. 기사의 착용물

1) 갑옷(armor, armour)

(1) 갑옷의 정의

갑옷이란 영문으로 “armor, armour, body armour”라고 하며, 우리말로는 투구와 묶어 갑주(甲冑)라고도 부르며 전투에서 사용되는 보호장구로 전투에서 공격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화살, 창, 작살, 칼, 총알 등의 여러 가지 무기를 빗나가게 하거나 흡수하는데 쓰인다.²⁵⁾

기사가 갑옷을 입은 것은 전투에서 살아남기 위함이었다. 방어를 위한 장비였다. 점점 더 치명적인 무기들이 등장하자 더욱 우수한 갑옷이 필요해졌다. 기사의 역사는 갑옷의 역사였다.²⁶⁾

본 논문에서는 중세갑옷의 주류를 이루었던 사슬갑옷과 판금갑옷으로 나누어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갑옷은 투구를 포함한 일습을 가리킨다.

(2) 갑옷의 종류

① 사슬갑옷(mail armor)

사슬갑옷은 BC 5세기 이후 유럽의 켈트족에서 유래되었다. 이 말 자체는 고(古) 프랑스어 maille(망사)에서 파생되었다. 이 갑옷은 작은 쇠고리가 연결되어 만들어진 의상을 말하며 아주 유연하여 편하게 입을 수 있지만 녹이 잘 슬고 태양에 빨리 뜨거워지는 단점이 있다. 대개 누벼진 속옷을 입었는데 이것

은 신체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고 찰과상을 방지하였다. 쇠사슬갑옷은 제작비용이 비싸 귀족계급에서 주로 착용되었고 그 외는 전쟁터에서 전리품으로 획득한 것을 착용하였다.

사슬갑옷의 이점은 몸의 움직임에 따라 형태가 유연하게 바뀌면서도 적이 휘두르는 칼날을 비교적 잘 막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정면으로 들진하는 무기는 대갈못으로 고정된 쇠사슬을 끊을 수 있다. 로마제국 전역과 그 국경 너머에 있는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단순한 셔트 모양의 사슬갑옷(hauberk)을 입었고, 사슬갑옷은 14세기까지 서유럽의 주요한 갑옷이었다.²⁷⁾

<그림 3>에서 보이는 사슬갑옷은 약 25만개의 쇠사슬이 연결된 것이다.²⁸⁾

12세기의 사슬갑옷은 거의 무릎에까지 이르는 긴 셔트형의 소매가 짧은 튜닉으로 대체되었다. 이것은 다양한 모양의 금속판으로 뒤덮여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쇠사슬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이것은 때로는 한 겹, 때로는 두 겹이기도 하며, 드물기는 하지만 세 겹인 경우도 있었다.²⁹⁾

이 사슬 갑옷은 허리 밑으로 양쪽이 트인 소매없는 튜닉이나 지팡 속에 착용되었다.³⁰⁾

② 판금갑옷(plate armor)

판금갑옷이란 강철판을 대갈못으로 혈겁게 연결



<그림 4> 16세기 예장용 갑옷
Stephen, N. F. (1998). Arms and Armor, p. 100.

하고 안쪽에 가죽을 대어서 입을 사람이 최대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들었다.³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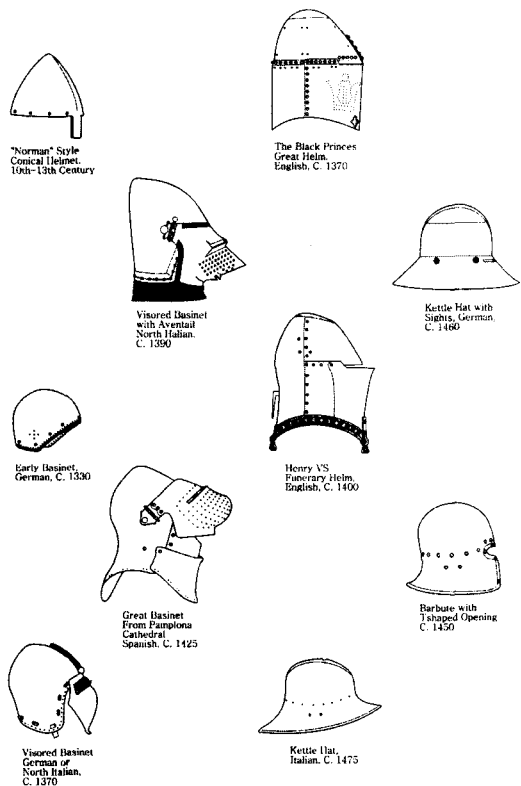
이 판금갑옷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인들의 흉갑으로 사용되었다가 중세 사슬갑옷의 대체용으로 채용되었다. 우리가 흔히 연상할 수 있는 기사들의 빛나는 갑옷이 유럽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350년 이후였다.

14세기는 흉갑이 보다 발달하여 이 시기는 판금갑옷과 사슬갑옷이 혼합된 형태의 갑옷이 등장하였다. 특히 판금갑옷은 각각의 판들이 리벳(rivet)으로 연결되어 정교하게 움직이게 하였다. 갑옷의 부속품들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약간 겹쳐진 상태로 연결되었는데 겹쳐지지 않으면 굽혀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안쪽부분에 가죽끈을 리벳으로 고정하였고 겉에 보여지는 리벳은 슬라이딩 리벳(sliding rivet)과 비기능적인 장식 리벳으로 장식하였다. 외부에 보여지는 장식적인 경첩과 내부의 경첩은 움직임을 가미한 중요한 기능적 악세서리 역할도 하였다<그림 4>.

약 1350년경에는 판금갑옷에 패션성이 가미되었는데 투구를 방지하기 위해 강철을 두껍게 하는 대신 석궁의 활이나 칼의 찌름에 방어하기 위해 모서리를 장식하였다.³²⁾

2) 투구(helmet)

중세 유럽에서 사용된 가장 단순한 투구는 두개(頭蓋) 부분만을 방어하는 도토리 모양의 원추형 투구였다. 11세기 이전까지는 원추형의 투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노르만의 정복으로 코 보호대가 추가되었다. 투구아래에는 후드(hood)를 썼으며 이것은 해드기어 역할을 했고 턱까지 덮는 것이었다.³³⁾



<그림 5> 투구의 종류,
Stephen, N. F. (1998). Arms and armor, p. 36.

13세기 말 중요한 2가지 혁신이 일어났는데, 그레이트헬멧(great helmet)이 어깨에 고정된 것과, 바시넷(basinet)이 등장한 것인데 바시넷(basinet)은 원래 반원형의 금속투구로 기사가 전투에 임하지 않고 그레이트헬멧(great helmet)을 가지고 다닐 때 코이프(coif)위에 썼던 보조용 투구였다. basinet은 점점 목까지 확장되어 14세기 중반 코이프는 메일커튼(mail curtain, 바시넷 아래를 덮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그레이트헬멧(great helmet)은 전투에서 바시넷(basinet) 위에 착용되었지만 무겁고 답답하고 불편하여 바시넷(basinet)에 경첩으로 연결된 면갑(visor)이 부착되면서 사라지게 되었다.

14세기 말에는 소위 돼지코 모양의 면갑이 달린 바시넷(basinet)이 나타났고, 그레이트헬멧(great helmet)은 단지 12세기경부터 얼굴과 목을 보호할 수 있는 투구가 등장하였고, 13세기와 14세기에는 마상시합용으로 다양한 투구가 발달하였다<그림 5>.³⁴⁾

4. 문장(heraldry)

기사문화에 있어서 문장은 기사의 신분과 지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중세복식에 널리 사용되었다. 서양의 문장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1400년경 시작되었고 문장학(heraldry)은 과학의 한 분야로 그 위치를 확립하여 오늘날에 이르렀다.

1) 문장의 정의 및 기원

문장의 정의에 대해 여러 학설이 있는데 이러한 학설을 종합해 보면 ‘중세 유럽의 기독교 신앙이 지배한 귀족사회에서 발생하여 방패에 개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해주는 심볼(symbol)을 그려 넣었던 세습(世襲)적인 제도’라고 한다. 서양문장의 발생은 전투 중에 피아(彼我)식별수단으로 단순히 적과의 구별뿐만 아니라, 지휘관인 기사의 일거수일투족을 부하들이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초기의 문장의 사용은 귀족에서 준귀족에 한정되었는데 이 전통은 계속 이어졌고 그 사용자가 지휘관이었던 귀족과 준귀족에게서 시작되었다.³⁵⁾

문장의 영어식 표기로는 Heraldry 또는 Armory로 쓰이는데 엄격히 말하면 Heraldry는 계보문장원(college of arms)이 관장하는 족보, 혈통과 의식 등을 포함하는 모든 것을 뜻하지만, Armory는 단지 문장만을 언급한 것이다.³⁶⁾

문장은 기사의 슈르코에 주로 보여진다.

2) 문장의 색(tincture)

문장학에서 색상은 ‘tincture’라 하며, 보통 금속색

2종류, 일반색 7종류, 모피 2종류와 2가지 변종이 있다. 색의 명칭은 중세 불어에 따르는데 금속색의 금색은 ‘or’, 은색은 ‘argent’로 2가지이다. 일반색에서 청색은 ‘azure’, 적색은 ‘gule’, 흑색은 ‘sable’, 녹색은 ‘vert’, 자주는 ‘purpure’, 적자색은 ‘murrey 또는 sanguine’, 황갈색을 띄운 오렌지는 ‘tenne’로 7가지이다. 적자색과 갈색은 드물게 사용되므로 학자에 따라서는 기본색을 5가지로 분류하기도 한다.

모피는 흰담비무늬(ermine)와 얼룩 다람쥐 무늬(vair) 두 종류가 있다. ermine은 담비의 모피에서 유래된 것으로 은색바탕(또는 흰색)에 검정색 담비꼬리형이며, 그 변형으로 ermines와 erminois가 있는데 ermines는 검정바탕에 흰색 담비꼬리형, erminois는 금색 바탕에 검정 담비꼬리형이 흩어져 있는 무늬로 나타난다. vair는 다람쥐의 일종으로 청회색 다람쥐에서 얻어지므로 청색과 백색의 작은 종모양을 교대로 배치시켜 놓은 모습이다.³⁷⁾

색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원칙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기본색의 경우 그 중간색과 파스텔색은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말 탄 기사들이 쓴 투구의 시계(視界)가 매우 나쁘기 때문에 혼동하기 쉬워 식별곤란한 색은 배제한다. 그리고 금속색 위에 금속색, 기본색 위에 기본색의 사용도 금한다. 이것 또한 식별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³⁸⁾

3) 문장의 조합

(1) 상위법(differencing, 相位法)

문장은 개인 단위로 2가지 이상의 동일한 문장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계승되는 문장도 한가지로 제약받는다. 특히 친족 및 형제간에서도 비슷하지만 동일하지 않게 하기 위해 반드시 어떤 표시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방법을 상위법(differencing)이라 한다.³⁹⁾

아버지의 문장은 부친의 사후에 첫 상속을 받은 자식의 문장이 되었다. 그러나 다른 자식들의 경우에도, 문장이란 소중한 가문을 나타내는 것이다 보니 마음대로 문장을 만들어 쓸 수는 없었다. 그래서 가문을 표시하면서 서열을 나타내어 자식들의 문장으로 삼는 방법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 방법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한 가지 방법은 서열을 나타내는 표식(cadency mark)을 부친의 방패 문장에 덧붙이는 방법이다<표 1>.

여성이 결혼하면 우측(dexter)에 남편의 문장을 좌측(sinister)에 처가의 문장을 조합하여 사용한다. 그러나 처가의 문장은 아버지가 사망하면 남편의 문

<표 1> 출생순위에 따른 문장도안

<i>The eldest son</i>	Label or File	수평의 띠	
<i>The second son</i>	Crescent	초승달	
<i>The third son</i>	Mullet	별	
<i>The fourth son</i>	Martlet	발없는 제비	
<i>The fifth son</i>	Annulet	작은 고리	
<i>The sixth son</i>	Fleur-de-lis	백합	
<i>The seventh son</i>	Rose	장미	
<i>The eighth son</i>	Cross Molines	십자	
<i>The ninth son</i>	Octofoil	八葉花	

또 한가지 방법은 방패에 테두리(bordure)를 달거나, 분할선을 사용해 그 색이나 모양을 바꿔 서열을 나타내고 변화를 주는 것이다.⁴⁰⁾

양쪽 모두 정연하고 합리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양쪽 방법을 적당히 섞어가며 사용했고, 종류가 다양했기에 대를 거쳐가다 보면 선조를 상세히 나타내기가 어려워진다.

(2) 배치법(marshalling, 配置法)

배치법(marshalling)이란 결혼이나 그 외 가문끼리의 결합으로 발생한 지위나 계급을 표시하기 위해 적절하게 문장을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⁴¹⁾

장에서 사라진다. 그에 반해 형제가 없는 여자 상속인(heiress)의 경우 남편은 처의 생가문장을 자신의 문장에 조합하는데, 그 자손은 부계(父系)와 모계(母系)의 문장을 함께 계승해야 할 의무를 졌다.

황제와 국왕, 제후(諸侯)의 문장은 개인의 문장과 다른데, 이것은 영토의 문장을 첨가하는 것이 통례(通例)이다. 영토가 증가할수록 문장의 수도 증가하였는데, 프로이센 왕의 경우는 50개 이상의 문장을 조합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시장(市長), 성직자, 문장관(紋章官)등의 직위를 가진 사람들은 방패의 우측에 지위를 나타내는 문장을, 좌측에는 자신의 문장을 조합하여 사용하였다.

IV. 중세복식에 반영된 기사문화

이상에서 본 것과 같이 기사문화는 중세 유럽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기사문화는 특히 갑옷과 전쟁을 통해 중세 복식에 영향을 미쳤는데 남성복의 변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

남성복의 변화에서 외적인 계기를 제공한 것은 13세기부터 14세기까지 엄청나게 변화된 갑옷이다. 사슬갑옷이 판금갑옷으로 바뀌는 시기였다.

1. 의복

1) 푸르푸앵(Pour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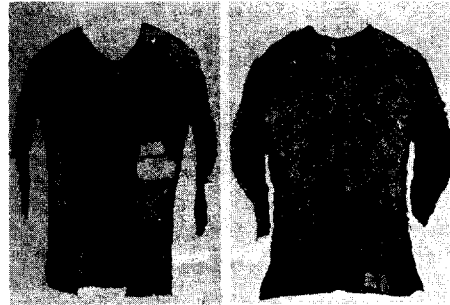
푸르푸앵은 누빈 옷이란 뜻으로, 영국에서는 더블릿(doublet)이라고 불렀다. 이 옷은 14세기 중엽에 나타난 짧은 의상인데 십자군 병사가 호신용으로 입었던 누빈 옷인 지퐁(jipon)이 변형·발달된 것이다. 지퐁은 11, 12세기의 군인들이 보통 갑옷 아래에 입었지만 칼이나 창 공격에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하게 처리되어 갑옷 없이도 입었다. 14세기에는 보병들이 입었을 뿐만 아니라 슈르코(surcot)와 시클라스(cyclas)와 함께 기사의 평상복이 되었다.⁴²⁾

13세기의 기사는 패드가 있고 누빈 푸르푸앵 위에 보호용 금속판이 무릎에 부착되어 있는 12세기의 사슬갑옷을 착용하였다. 그리고 갑옷 위에 실크나 리넨으로 만든 문장이 수 놓인 슈르코를 입었다. 14세기 중반 이후 기사의 판금갑옷이 점점 몸에 밀착되기 시작하면서 갑옷의 가장자리 부분이 꼭 맞고 비교적 뾰족해서 찰과상을 입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해결책이 필요하였다.⁴³⁾

그래서 갑옷이 대중에게 일반화되었을 때 시민복은 패드가 들어있는 푸르푸앵과 누벼진 호즈(hose), 그리고 두툼하게 누빈 주름 스커트 등을 착용하면서 피부가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고, 더욱 신체를 보호하고, 갑옷을 단단히 고정시킬 필요에 의해 변천되었다.⁴⁴⁾

15세기 초기 지퐁은 더 이상 군복으로는 사용되지 않았다. 그 당시 기사는 판금갑옷을 착용하였는데, 이 때 가슴과 어깨에 패드를 넣은 꼭 맞는 재킷이

'푸르푸앵'이라는 이름으로 일반인들에게 퍼졌다.⁴⁵⁾ 지퐁은 겨드랑이 밑에 트임이 있고 몸에 꼭 맞게 조이는 것이지만, 푸르푸앵은 앞이 트이고 단추로 여민 점이 다르다. 초기의 푸르푸앵은 앞에 단추가 달려지 않았으며 품이 넓어서 허리에 띠를 둘렀다.



<그림 6> Pourpoint의 앞과 뒤
Francis, B. (1997). *20,000years of fashion*, p. 197.

<그림 6>와 같이 푸르푸앵은 몸에 꼭 맞았으며, 가슴, 옆, 그리고 힙에 패드를 넣었고, 길이가 짧은 것이 특징이었다. 이 의복의 소매는 팔꿈치에 주름이 있고 팔꿈치부터 손목까지는 좁아지는 퍼프(puff)소매였다.⁴⁶⁾ 그리고 이것은 허벅지를 덮을 정도로 길었으며, 점점 좁아져서 허리부분을 꼭 맞게 했고, 소매는 위험한 경우에 대처하도록 완전한 원형 형태로 디자인해서 착용자가 자유롭게 팔을 움직일 수 있게 하였다.⁴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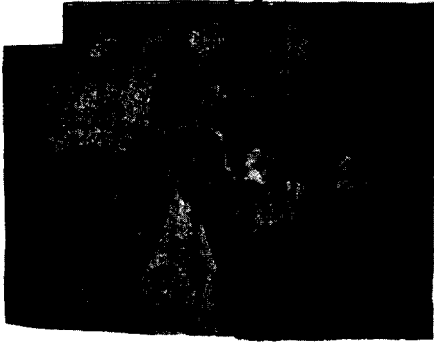
그리고 패턴상으로는 뒷판에 절개선이 없고 패딩을 감안하여 크게 재단하였다. 앞 중심은 패딩을 넣기 위해 바깥쪽으로 불룩하게 재단되었다.⁴⁸⁾

이처럼 푸르푸앵은 매우 정교하고 섬세하게 재단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근대적 재단법의 시초였다.⁴⁹⁾

2) 슈르코(Surcot)

슈르코는 십자군 전쟁 당시 강한 햇빛의 반사와 눈, 비, 먼지로부터 갑옷을 보호하기 위해 병사들이 갑옷 위에 입기 시작한 의상이었는데, 차차 일반에게도 유행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두 개의 직사각형 천을 양쪽 어깨에서 꿰매어 걸쳤는데, 후에는 옆솔기선을 꿰매기도 하고 가슴부터 스커트 단까지 풍성한 주

름을 잡아 넓히는 등 실루엣이 다양해졌다<그림 7>.



<그림 7> 문장이 디자인 된 쉬르코,
정홍숙 (2000). 서양복식문화사, p. 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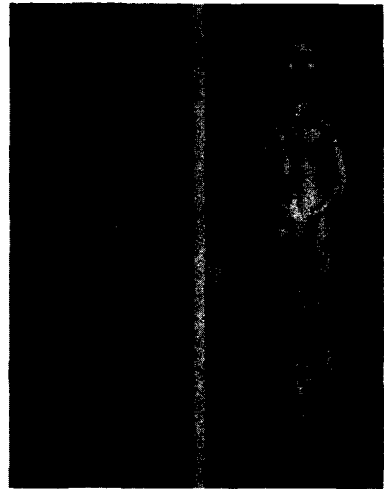
기사의 쉬르코는 일반 쉬르코보다 약간 넓었지만 거의 같은 디자인이었는데 부드러운 소재로 만드는데다가 칼을 꽂기 위해 허리에 벨트를 들렀기 때문에 엉덩이 부위에 잔주름이 많이 잡혔고, 종아리 중간 정도의 길이로 내려 왔는데 점차 무릎길이가 되었다. 또 뒤보다 앞이 짧은 것도 있었다.⁵⁰⁾

14세기부터 쉬르코는 어깨, 가슴, 허리는 꼭 맞았지만 짧아진 스커트 부위에는 여유가 있었다.

14세기 말부터 다채로운 색의 자수가 유행하자, 귀족 부인들은 가문을 존중하는 봉건적 풍습에서 낮은 계급과의 구별을 위해 의상에다 가문을 나타내는 문장을 수놓기 시작했다. 좌우 양쪽이나 상하로 나누어 색상과 문양을 다르게 디자인했는데, 이러한 문장의 문양에는 사자와 독수리 문양이 가장 인기가 있었다. 결혼을 하면 남편은 생가(生家)의 문장을 코다르디나 쉬르코에 나타내었고, 처가(妻家)의 문장은 망토에 나타내었다. 부인은 시가(孀家)의 문장을 오른쪽에, 친가(親家)의 문장을 왼쪽에 나타내었고, 아이들은 아버지 쪽의 문장에다 새로운 디자인을 가해서 복잡한 문장을 갖게 되었다.⁵¹⁾

3) 코다르디(Cotehardie)

코다르디는 십자군전쟁으로 기사문화의 기능적 실용적 측면과 동방적인 요소가 결합된 의상으로 이탈리아에서 처음 시작되어 유행하던 것으로 14세가 되자 알프스를 넘어 프랑스로 들어왔다.⁵²⁾



<그림 8> 남녀의 코다르디
정홍숙(2000). 서양복식문화사, p. 152.

<그림 8>에서 보여지는 여성의 코다르디에는 스커트 앞판의 양옆에 세로의 슬릿이 있는데, 안쪽 벨트에 달려있는 지갑에 손이 닿을 수 있었다. 이것이 호주머니의 시초가 되었다.⁵³⁾

코다르디의 가장자리에는 톱니장식(dagging)이 많이 사용되었고, 깃(collar)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여자들은 작은 가위를 허리띠에 달고 다녀 마상시합 때 좋아하는 기사에게 행운을 나타내는 부적으로 티핏(tippet)을 잘라서 주는 것이 관습이었다.⁵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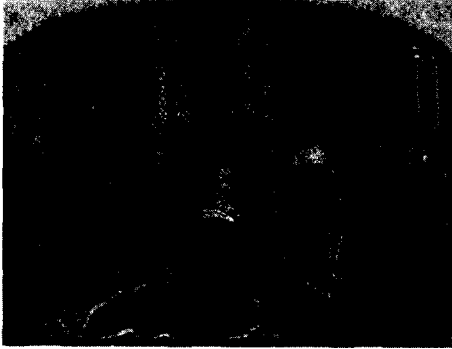
4) 호즈(hose)

14세기 중반에는 남성복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호즈가 중요시되었다.

즉 십자군 전쟁에 의해 새로 생겨난 짧은 길이의 푸르푸앵의 변형으로 호즈가 발달하게 되었다. 호즈는 모피로 테두리 장식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림 9>의 남성들이 착용한 검은 호즈와 같이, 신발을 대신하여 발바닥에 밀창을 댄 호즈도 있었다.⁵⁵⁾

호즈는 바이어스 재단을 해서 활동하는데 요구되는 신축성을 주었으며 동시에 훌륭하게 맵시 나도록 했다. 실제로 호즈의 길고 뾰족하게 연장된 부분이 허리까지 닿았으며 푸르푸앵에 고정되었다. 그리고 쉬르코를 반반 나누어서 다른 색을 사용하고 호즈의 한 짝은 두가지 색으로 하고 다른 한 짝은 제3의 색

으로 한 의상을 파티컬러드(parti-colored)라고 불렀다.



<그림 9> 15세기 중반의 호즈
Francis, B. (1997). *20,000years of fashion*, p. 208.

이처럼 남자복식은 번덕스러우면서도 세련되었고 색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였는데 호즈의 색도 비비드(vivid) 색이나 수직선의 줄무늬도 사용하였다.⁵⁶⁾ 궁정광대의 의복에서는 계속 다른 색을 동시에 사용하였는데 현대 서커스 모자에도 마찬가지로 계속 사용되고 있다. 마상시합을 매우 화려하게 해주기 위해 기사와 더불어 마구에 맞추어 말을 성장(盛裝)시켰다.⁵⁷⁾

5) 시클라스(Cyclas)

시클라스는 십자군 전쟁 동안 갑옷, 투구, 무기에 서 반사되는 섬광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동의 숨이 막힐 듯한 무더움을 차단하고 갑옷과 투구, 무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된 의복으로 쉬르코와 달리 소매가 있다. 처음에 시클라스는 어깨넓이보다 약간 넓은 아주 긴 패널이었다. 패널의 중심부는 머리를 내밀 수 있도록 뚫려 있다. 앞부분과 뒷부분은 어깨에서 무릎까지 늘어져 있다. 시클라스의 영향을 직접 받은 것은 타바드(tabard)이다<그림 10>. 이것은 전령사의 관복이며 왕궁의 대관식에서 볼 수 있는데, 원래 기사가 갑옷 위에 입은 일종의 넓고 짧은 소매가 달린 상의였다. 문장관(紋章官)이 일종의 제복같이 입고 있던 문장이 들어간 의복도 타바드라 했다. 중세 문장관은 문장의 기록을 맡아 보았으며, 마상시합 개최를 선언하고, 마상시합의 선전과 경기의 심판 등을 담당하였으며, 그 밖에 체전이나 의식



<그림 10> 타바드
Francis, B. (1997). *20,000years of fashion*, p. 199.

의 사회도 맡아보았다.⁵⁸⁾ 타바드는 옆이 트여 있으며 문장으로 장식되어 있다. 반면에 시클라스는 둘러 입으며 활동의 편의를 위해 앞뒤 가운데 밑단으로부터 위쪽으로 트여있다. 시클라스는 일반인의 복장으로서는 프랑스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긴 길이의 의복이 유행하게 되었다.⁵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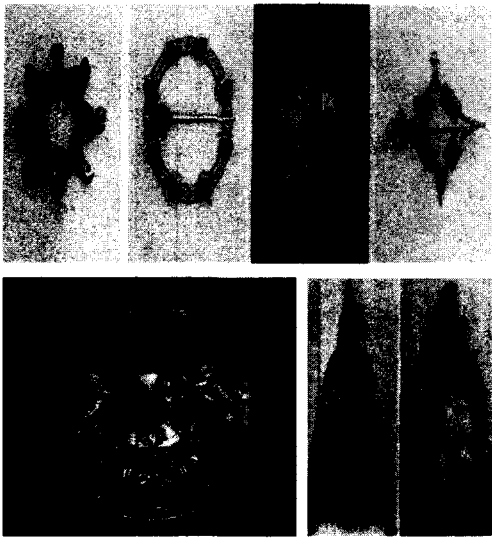
2. 장신구

중세 중기에서 시작하여 남녀 모두가 보석의 사용이 행운과 승리를 가져온다고 믿어서 장신구에 보석장식이 유행하였는데 <그림 11>은 기사문화에서 문장을 응용한 장신구들이다.

이 시대의 공예품도 보석장식과 조각으로 정교한 작품이 많았다. 14세기에는 베니스에서 유리거울이 발명되었고 남녀 모두 유리거울을 장신구로 이용했으며 여성들은 거울을 작은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⁶⁰⁾

이 주머니는 십자군 기사의 관습 중 하나였던 허리에 부착한 주머니에서 유래한 것으로 성직자들이 각각의 신병들에게 순례자의 지팡이와 십자가를 담을 수 있고 기타 값진 것들을 지니고 다닐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⁶¹⁾

그리고 거들(girdle)은 중요한 장신구 중의 하나로써 앞에서 여며지고 길게 늘어뜨렸으며, 튜닉이 접혀지면서 보이지 않기도 하였다. <그림 9>의 남자 의상에 거들(girdle)이 보이는데 거들의 착용은 십자군 기사에 의한 동방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기사의 거들에는 대개 칼이 부착되었다.⁶²⁾



<그림 11> 고딕 시대의 장신구,

정홍숙 (2000). 서양복식문화사, p. 157; Patricia, L. (2000). *Calligraphy illumination & heraldry*, p. 201; Blanche, P. (1965). *History of costume*, p. 207.

일반 남성의 경우는 왼쪽에 보석을 장식한 단검(短劍)을 작은 주머니에 넣어 거들에 달고 다녔는데, 이 단검은 신사복장의 중요한 일부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유행은 십자군 기사들에 의해 유럽으로 전파된 것이었다. 또한 거들에는 가위, 열쇠 그리고 바느질 용구를 달고 다녔고, 거의 악취를 피하기 위해 향수도 달았다.⁶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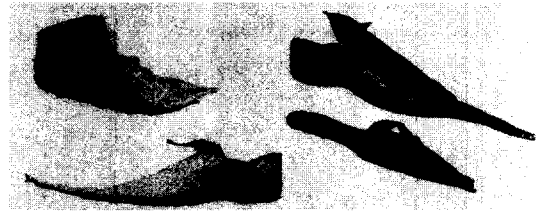
3. 신발

십자군 전쟁으로 인한 동양의 영향과 상업과 도시의 발달에 의해 부유해진 중산층의 성장으로 이 시대의 신발은 화려하고 사치스러웠다. 신발은 보석과 자수 그리고 금으로 장식되었다.⁶⁴⁾

고딕의 신발은 고딕 건축물의 뾰족한 감각이 그대로 반영되어 발달한 것이다. 신발의 앞은 뾰족하게 연장하여 발끝에서 25~30cm 정도 긴 것도 있었으며 그 끝을 끈으로 발목에 고정시키기도 했다. 또한 그 끝은 뱀의 꼬리, 물고기 꼬리 등의 기발한 형이 유행했는데 이는 발달된 세공기술을 최대한 발휘한 것이다. 크래코즈(crakows)라는 이 신은 발목을 끈으로 묶는 간단한 슬리퍼형과 하프 부츠(half-boots),

앵글 부츠(ankle-boots)형이 있는데 종아리를 덮도록 접어 커프스를 댄 것도 있다. 이런 신이 전 유럽 궁중에서 유행했는데 이것을 폴레느(poulaine)라고 불렀다<그림 12>.⁶⁵⁾

기사들이 신었던 철화(鐵靴)<그림 13>는 고딕시대의 크래코즈와 형태가 거의 같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일반시민들의 신발과 기사들의 신발이 고딕(gothic)이라는 독특한 시대적 배경 하에서 생긴 현상으로 보여진다.



<그림 12> 고딕 시대의 신발

정홍숙 (2000). 서양복식문화사, p. 156.



<그림 13> 기사의 철화(鐵靴)

川成 洋 (2000). 武器と 甲冑, p. 21.

V. 결 론

11세기에서 15세기 중반의 기사문화는 사회·문화적으로는 로마네스크와 고딕양식을 배경으로, 정치·군사적으로는 봉건제와 십자군 전쟁이라는 특수한 배경하에 중세복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다.

이 기사문화는 특히 전쟁과 갑옷을 통해 중세 복식에 영향을 미쳤는데 남성복의 변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 13세기부터 14세기에 사슬갑옷이 판금갑옷으로 바뀌게 되자 남성복에서는 절개가 다시 생겼으며, 몸에 밀착된 판금갑옷을 입기 위해 호즈의 형태

가 발달하게 되었다.

중세복식에 나타난 기사문화를 의복과 장신구, 신발로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다.

의복에서는 십자군 병사가 호신용으로 입었던 누빈 옷인 지팡이 변형·발달된 푸르푸앵과, 강한 햇빛과 눈, 비, 먼지로부터 갑옷을 보호하기 위해 갑옷 위에 입었던 쉬르코가 있다. 그 외에 코다르디와 호즈 등이 있다.

장신구로는 지갑과 거들 등이 있는데 지갑은 십자군 전쟁 기간 중에 성직자들이 병사들에게 순례자의 지팡이와 십자가와 함께 지갑을 준 것과 값진 물건을 지니고 다닐 수 있게 하기 위해 생겨나 널리 유행했다.

신발은 고딕 건축물의 뾰족한 감각이 그대로 반영된 크래코즈(crakows)와 고딕 시대 갑옷의 철화(鐵靴)가 거의 같은 것을 볼 수 있다.

이상으로 기사문화가 중세복식에 미친 영향을 고찰해 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의복에 있어서는 십자군 전쟁과 갑옷, 문장이라는 군사문화가 중세전반에 걸쳐 유행하였고, 장신구는 십자군 전쟁의 결과 동양 문물의 유입과 상공업과 무역의 발달로 보다 화려해졌다. 신발은 고딕 시대의 신발을 보면 기사의 철화(鐵靴)와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시대적 특성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기사문화는 복식뿐만 아니라 중세 정치·문화·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기사문화가 중세 복식에 미친 영향을 고찰함으로써, 기사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하고 나아가서는 무대의상과 게임산업 분야에 있어서 기사에 관한 체계적이고, 보다 근접할 수 있도록 디자인 개발에도 효용가치가 있었으면 한다.

끝으로 선행연구와 자료부족 및 실증적 사료를 쉽게 접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문헌자료 중심의 조사로 연구의 한계를 느꼈지만 꾸준한 관심과 열정으로 이와 연관된 후속연구를 지속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사료된다.

참고문헌

- 1) 마르크 블로크, 한정숙 譯 (1986). *봉건사회 II*. 서울: 한길사, p. 29.
- 2) Knight and Armour, 중앙방송 CH25, 2002년 10월 25일 방영.
- 3) 신상옥 (1980). 중세 서양의 문장과 문장복에 관한 소고. 중앙대학교 사범대 학보 16집.
- 4) 정현숙 (1985). 십자군 전쟁이 중세복식에 미친 영향 - 11세기~15세기 중반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최영옥 (1994). 중세 서양문장과 문장복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6) 안상길 (1988). 십자군 원정의 의의와 그 배경. 광주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7) 김희용 (1992). 중세 기사 교육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8) 최용감 (2002). 중세사 안에서의 십자군 운동의 위치 - "기억과 화해, 교회의 과거의 잘못" 문서를 통한 반성과 더불어. 광주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9) Stephen, N. F. (1998). *Arms and armor*. New York: Harry N Abrams, Inc. p. 51.
- 10) 최재현 (1993). 유럽의 봉건제도. 서울: 역사 비평사, p. 121.
- 11) Brian, T., Sidney, P.. 이연규 譯 (1993). 서양 중세사. 서울: 집문당. p. 153.
- 12) 최재현 (1993). 앞의 책, p. 47.
- 13) 막스 폰 빈, 이재원 譯 (2000). 패션의 역사 (중세부터 17세기 바로크시대까지). 서울: 한길아트, pp. 46-47.
- 14) 정현숙 (1985). 앞의 책, p. 3.
- 15) John, K., 유병진 譯 (1996). 세계전쟁사. 서울: 까치글방, p. 306.
- 16) 김진웅 (1994). 서양사의 이해. 서울: 학지사, pp. 155-157.
- 17) Frederic, D., 윤승준 譯 (1995). 새 유럽의 역사. 서울: 도서출판 까치, p. 166.
- 18) 차하순 (2000). 서양사총론 I. 서울: 탐구당, p. 328.
- 19) 버나드 로 몽고메리, 승영조 譯 (1996). 전쟁의 역사 1. 서울: 책세상, p. 278.
- 20) Stephen, N. F. (1998). *op. cit.*, p. 54.
- 21) John, G. (1998). *Medieval jousts and tournaments*. New York: Dover Publications, Inc. p. 5.
- 22) 버나드 로 몽고메리 (1996). 앞의 책, p. 275.
- 23) Stephen, N. F. (1998). *op. cit.*, p. 54.
- 24) Knight and Armour, 중앙방송 CH25, 2002년 10월 25일 방영.
- 25) 한국 브리태니커 회사 편 (1993). *Britannica world en-*

- cyclopadia I*. 서울: 한국 브리태니커 회사, p. 212.
- 26) Knight and Armour. 중앙방송 CH25.
- 27) 한국 브리태니커 회사 편 (1993). 앞의 책, p. 212.
- 28) Stephen, N. F. (1998). *op. cit.*, p. 39.
- 29) 찰스 바우텔, 박광순 譯 (2002). 무기의 역사. 서울: 가람기획, p. 146.
- 30) Eduard, W., Zoroslava, D., & Jan, D. (2000). *Medieval costume, armour and weapons*. New York: Dover Publication, Inc., p. 27.
- 31) 한국 브리태니커 회사 편 (1993). 앞의 책, p. 212.
- 32) Stephen, N. F. (1998). *op. cit.*, pp. 44-46.
- 33) Rogers, H. C. B. (1955). *The pageant of heraldry*. London: Seeley Service & Co. Ltd, p. 24.
- 34) 스타 부로, 이완진 譯 (2000). 중세 기사 이야기. 서울: 나이즈 나이즈, p. 123.
- 35) 森護 (1998). 紋章學辭典. 東京: 大修館書店, p. 5.
- 36) Rodgers, H. C. B. (1955). *op. cit.*, p. 18.
- 37) 최영옥 (1994). 앞의 책, p. 52.
- 38) 森護 (1998). 앞의 책, p. 8.
- 39) 森護 (1998). 위의 책, p. 12.
- 40) 스타 브로 (2000). 앞의 책, pp. 138-139.
- 41) Thomas, W., & John, M. R. (2001). *The oxford guide to heraldry*.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p. 116.
- 42) Joan, N. (1984). *Fashion in costume 1200~1980*. New York: Schocken Books, p. 14.
- 43) Millia, D. (1976). *The book of costume*. New York: Crown Publishers Inc, p. 152.
- 44) Millia, D. (1976). *op. cit.*, p. 160.
- 45) Joan, N. (1984). *Fashion in costume 1200~1980*. New York: Schocken Books, p. 14.
- 46) Francois, B. (1997). *20,000years of fashion*. New York: H. A. Abrams, p. 204.
- 47) Blanche, P. (1965). *History of costume*. New York: Haper & Row, Publishers, p. 210.
- 48) Köhler, C. (1963). *A history of costume*. New York: Dover Publications, Inc., p. 167.
- 49) Russel, D. A. (1983). *Costume history and style*. New Jersey: Prentice-Hall, p. 145.
- 50) Russell, D. A. (1983). *op. cit.*, p. 135.
- 51) 정홍숙 (2000). 서양 복식 문화사. 서울: 교문사, pp. 148-149.
- 52) 위의 책, p. 147.
- 53) Blanch, P. (1965). *op. cit.*, p. 190.
- 54) Blanche, P. (1965). *op. cit.*, p. 187.
- 55) Francois, B. (1997). *op. cit.*, p. 195.
- 56) Pistolese, R., & Horsting, R. (1970). *History of fashions*.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p. 165.
- 57) Wilcox, R. T. (1958). *The mode in costume*.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p. 50.
- 58) Knight and Armour. 중앙방송, Ch25.
- 59) Blanche, P. (1965). *op. cit.*, p. 160.
- 60) 정홍숙 (2000). 앞의 책, p. 156.
- 61) Blanche, P. (1965). *op. cit.*, p. 158.
- 62) Francis, K. M., & Randolph, S. (2002). *A short history of costume & armour*. New York: Dover Publications, Inc., p. 21.
- 63) Lester & Keer (1967). *Historic costume*, Illinois: Chas. A. Bennett, Co. Inc., p. 84.
- 64) 정현숙 (1985). 앞의 책, p. 49.
- 65) 정홍숙 (2000). 앞의 책, pp. 156~157.